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 두 얼굴의 대형마트

### 2 제품 믿을 수 있나

# 농약·세균 검출 '연례행사'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과 쇼핑의 편리함,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대형마트를 자주 이용한다. 대형마트들은 '콜드 체인 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완벽하게 구축해 품질에 완벽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곳곳에서 품질관리에 대해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3년간(2008년~2010년 8월) 유통판매업체 단속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판매해 적발된 건수가 전체 282건 중 142건으로 50%를 차지했다.

적발후에도 2008년 46건에서 지난해 65건, 올해 8월까지 31건으로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008년에는 광주지역 홈플러스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 등으로 적발됐지만 과징금 1162만원을 내는 데 그쳤다.

때문에 연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마트들의 경우 제품의 신선도나 질 문제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있어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관세청에 적발된 대형마트도 지난해 66곳이었으며 올해 들어 8월까지 27건에 달했다.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009년 1·4분기 식품 수거검사 실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약 검출량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133개로 이 가운데 대형마트 등에서 검출된 건수가 30개로 22.6%에 달했다.

이중 광주지역 홈플러스에서 판매된 미니삼주에서는 살균제인 메



10일 오후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등 지역 중소상인들이 홈플러스 동광주점 앞에서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추가 입점 결사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새벽 삼성테스코 측이 서구 중앙동과 광산구 우산동에 SSM 입점 예정지 점포에 기습적으로 물품 반입을 시도하자, 중소상인들은 "광주시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입점을 강행한다면 홈플러스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 유통기한 지난 제품 버젓이 진열 원산지 표시 위반도 울들어 27건 납품업체에 책임 떠넘기기 일쑤 적발돼도 과징금 처분 '숨방망이'

트코나졸이 기준치를 25배나 초과해 검출됐으며, 부추에서도 살균제인 플루린코나졸이 기준치 5배를 초과해 문제가 됐다.

지속적으로 대형마트의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이유는 생산자 책임의 원칙으로 대형마트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유통업계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모(35)씨는 "신선식품의 경우 유통업체들이 재고 소진을 위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들에 대해 할인을 많이 적용해서 판매

하는 게 관행"이라며 "대형마트에서 파는 게 싸고 좋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장에서 진열해 놓고 팔았던 상품이 신선도가 떨어질 경우 소포장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형마트에서 저렴하게 파는 제품을 살때는 잘 살펴보고 당부했다.

대형마트가 제품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거짓광고를 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

회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롯데마트,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수거한 7종의 과일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이들 대형마트들이 품관원보다 자체기준을 높게 책정했다고 홍보하면서도 이에 미달하는 당도의 과일들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품관원에 따르면 이마트에서 당도 13이라고 표기한 사과는 12였으며, 당도 11로 표기한 복숭아는 10.4, 당도 11이라고 표기한 귤은 8.2 등 당도가 표시한 것보다 낮게 측정됐다.

롯데마트에서는 수거한 과일 7종 모두 표기한 것보다 과일 당도가 낮았으며 홈플러스에서도 사과, 복숭아, 참외, 멜론이 당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일에는 롯데마트가 영국 명품 그릇의 병행수입 제품(정식 수입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제3국 등을 통해 수입한 제품)을 직수입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벌금을 부과한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 SSM 기습입점 ... 몸살 앓는 지역상권

# "법 시행전 오픈" 발빠른 준비에 영세상인들 물품반입 저지 충돌

광주 서구 중앙동 등을 비롯해 전국 곳곳이 대형 유통업체의 SSM 기습 개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SSM이 기존 중·대형 슈퍼마켓을 인수해 우선 입점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새벽 기습 입점'을 시도하고 있어 인근 영세 상인들과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대구 수성구 지산동 목련시장 앞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개점이 시도되자 목련시장 상인회 소속 20여 명의 상인들이 물품 반입을 막으며 홈플러스 직원들과 대치했다.

이곳 상인들은 며칠 전부터 SSM 입점이 예상되며 조를 짜 입점을 감시해왔다. 특히 이 일대는 최근 잇따라 3곳의 SSM이 입점해 주변 상인들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지난 2일에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백병원 인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예정지에 SSM 개점을 강행하려는 (주)삼성테스코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인근 상인들 간에 대치상황이 벌어졌다.

상인들은 매일 순번을 정해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불침번'을 서면서 야간에 물품을 실어 나르는 트럭이 접근에 들어서는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인천 주안동 홈플러스 입점 예정지는 삼성테스코 측과 지역 상인들간의 '대치상태'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삼성테스코는 광주 서구 중앙동과 치평동을 비롯해 서울 상계동과 인천 주안동 점포를 당초 직영점으로 개점하려 했으나 지역 상인들의 사업 조정 신청으로 제동이 걸리자 지난 8월부터 가맹점 형태로 개점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논란을 빚으면서도 대형 유통업체들이 '우회 입점' '기습 개점' 등을 강행하는 것은

대형마트가 점포 진출 포화로 성장이 둔화하자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형 슈퍼(SSM) 출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규제에 달한 SSM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유통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SSM을 출점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김경남 광주시슈퍼마켓 협동조합 사무이사장은 "중소상권이 다 무너지게 되면 대기업이 지역 상권을 독점하게 돼 결국에는 생산자, 도매, 중소상인까지 연쇄적으로 몰락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 이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 대형 유통업체 무분별 확장·할인경쟁

# 동네슈퍼 매출 '반토막'

### 10곳중 7곳이 매출 20% 이상 감소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과 할인경쟁으로 인해 영세상인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올 초 대형마트들이 가격 싸이전을 벌이면서 인근 동네 슈퍼마켓 10곳 중 7곳에서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다.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반경 1km 이내에 있는 동네슈퍼마켓 20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형마트간 가격 할인 경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네 슈퍼마켓 10곳 중 7곳은 최근 대형마트 간 가격할인 경쟁으로 매출과 고객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할인 경쟁에 따른 고객 및 매출액 감소 현황을 보면 고객과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 소매점 비율은 71.9%에 달했으며, 점포 경영 상황은 82.1%가 지난해 1분기보다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과일 경쟁으로 성장세가 주춤했던 대형마트들은 가격할인 행사 덕분에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이 3~8% 가량 증가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 신규 점포 확장이 어려워지자 몸집을 줄여 SSM으로 골목상권까지 파고들면서 지역 상권은 급속도로 몰락하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07년 이후 3년간 SSM 업계의 점포수는 전국에 3배(223개)로 늘었다. SSM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이 본격화된 지난 한 해 동안 200개가 신규로 문을 열었으며 올해 6월 말 대기업이 운영 중인 SSM 점포수는 800개에 육박한다.

이 기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출액은 355.9%로 급증했으며, 광주지역에 11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슈퍼도 매출액이 157.6% 증가했다.

하지만 SSM이 진출한 지역의 인근 소매점포들은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매장면적 150㎡ 이하인 소형 슈퍼마켓의 점포 수는 7만9200개로 5년 사이 2만개 이상 줄었다.

최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발표한 'SSM 인근 소매점포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SSM 진출 지역 인근 점포(조사 대상 3144개)의 매출액은 평균 48% 감소했다. 고객 수는 51% 줄었다.

이에 대해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광주 지역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골목상권 몰락은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지역발전과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형 소매시설을 허가제로 규제하고 있으며 입점 업체들에게는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기자 exian@kwangju.co.kr

JET 초등영어시험 ETS TOEIC Bridge

# 광주/전남 초·중등 영어학력평가



####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적이 광주, 전남지역 거주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 참가신청

신청기간 : 2010년 11월 15일 ~ 12월 9일  
신청방법 :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 참조

#### 시상내역

최종 수상인원  
1. 뉴질랜드 17명(초·중) 20명  
2. 1천만 원 상당 장학금 수여 105명(초·중) 69명, 중·등 46명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www.kwangju.co.kr)

#### 응시일자

2010년 12월 19일(일) (09시50분)

#### 응시장소

광주·전남 지역 지정 고사장(추후 홈페이지 게시예정, 참조)

#### 응시료

JET : 22,000원(VAT 포함)  
TOEIC Bridge : 29,000원(VAT포함)

#### 대회요강

구분	참가 자격	수상 자격	비고
초등부 (JET)	초등부	JET 초급부문: 1 ~ 2학년	- 동점자 처리기준 - · 1순위: Writing 성적 순으로 최종 심사 · 2순위: 연소자 우선(생년월일 늦은 순) · 3순위: 해외체류 무 경험자 우선
		JET 중급부문: 3 ~ 4학년	
		JET 고급부문: 5 ~ 6학년	
중등부 (TOEIC Bridge)	중등부	중학교 1학년 부문	
		중학교 2학년 부문	
		중학교 3학년 부문	

· 초·중, 중등부별 참가 자격에 학년 제한은 없으나, 수상은 위 표에 나와 있는 해당 학년만 자격이 주어짐.  
· 수상자격이 없는 참가자에게도 성적분석표(참가자 전원), 합격증 및 인증서(합격자에 한함)가 수여됨.  
· 시상은 각 부문별로 학년별 시상을 기본 원칙으로 함

문의 및 안내 062)220-0555 광주일보(www.kwangju.co.kr) 홈페이지 참조  
- 학교별 단체 접수 시 고사진행본부로 연락바랍니다 -



주최. 광주일보 / 한국 TOEIC 위원회 시행. 한국 TOEIC 위원회 후원. KATE 한국영어교육학회 / YBM Sisa.com

